

나와 하나 되는 비결

작성일 : 2009. 12. 12 (토) 오전 3:34

작성자 : 주혜인

내 사랑하는 신부야.

이제 내가 오늘 알려준 것 알겠느냐.

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나는 찾고

그러한 자 정녕 나를 맞으리라.

[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
받은 말씀입니다.]

나와 하나 되는 비결 알려 달라 하였느냐?

나를 맞는 법 알려달라고?

너희 마음의 방을 비우라.

깨끗이 비우라. 온전히 비우라.

내가 들어 있는 공간만큼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
하노라.

오,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

나는 오늘 이 비결을 알려 주고 싶노라.

내게 오라. 내 멍에는 쉬움이니라.

먼저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나를 맞을 수 없다.

방을, 집을 치우지 않고 나를 맞을 수 있겠느냐?

절대 없지. 손님에게 너저분한 방을 내 보일 수 있
겠느냐.

마음의 정결함이 가장 우선이다.

그 다음은 나를 사랑으로 맞을 단장이다.

사랑이 단장이다.

방을 치웠으면 꾸며야지. 예쁘게 꽃도 놓고

신방을 알콩달콩 꾸며야 하는 것이다.

그리고 내가 왔으면 버선발로 나가서 나를 맞고

그 온 길 피로 풀어 드려야지.

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음식도 대접하면 좋지 않으
냐.

같이 먹으며 힘을 내고

정말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대화도 하고 사랑을 나
누어야지.

이와 같다.

너희 마음의 방을 우선 치우라.

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.

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.

그리고 내가 오길 청해야 한다.

사랑과 나에 대한 위로로 나를 맞아야 한다.

그래야 내 심정에 맞는 자이지.